

p. 4

이 책의 저자

## 마크 트웨인 (1835 – 1910)

본명은 새뮤얼 랭혼 클레멘스(Samuel Langhorne Clemens)로, 필명 마크 트웨인(Mark Twain)으로 더욱 잘 알려진 미국의 소설가이다. 미국 미주리 주 플로리다에서 태어나, 네 살 때 미시시피 강변에 위치한 작은 마을 해니벌로 이사했다. 미시시피강 주변의 자연과 생활은 마크 트웨인이 앞으로 쓸 작품에 무한한 영감을 제공했고, 특히 <톰 소여의 모험>의 주무대가 되었다. 1847년 변호사였던 아버지의 죽음으로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마크 트웨인은 학업을 중단하고 생업 전선에 뛰어드는데, 한때 미시시피 강에서 수로안내인 생활을 하기도 했다. 그후 여러 신문사에 유머 소품과 여행기를 기고하기 시작했는데 물 깊이가 두 길밖에 안 된다는 의미의 ‘마크 트웨인’을 필명으로 쓰기 시작했다. 1869년 출간한 <철부지 해외여행기>가 인기를 끌자 전업작가의 길로 들어선다. 1876년 <톰 소여의 모험>이 당대 베스트셀러가 되고, 1885년에는 <허클베리 펁의 모험>으로 문학계의 거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마크 트웨인은 미국에서 최고로 사랑받는 이야기꾼으로 그의 유머는 끊임없이 독자들을 매료시켰다. 그는 앞서 언급한 두 대표작 이외에 <미시시피강의 추억>, <아서 왕과 코네티컷 양키>, <왕자와 거지> 등 수많은 작품을 남겼다.

p. 5

## 톰 소여의 모험 The Adventures of Tom Sawyer

톰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폴리 이모와 함께 살고 있다. 톰은 엄청난 장난꾸러기여서, 폴리 이모는 늘 톰의 벼룩을 고쳐 주려고 하지만 허사이다. 어느 주말에 담장을 페인트 칠하라는 이모의 명령에 톰은 울며 겨자 먹기로 페인트붓을 들지만, 결국 좋은 수를 생각해 낸

다. 지나가는 동네 친구들한테 페인트 칠이 즐거운 듯이 꾸며서 일을 떠넘긴 것이다.

동네에 부모 없이 혼자 살고 있는 혁 핀과는 둘도 없는 친구 사이로, 이 소년들은 늘 모험을 갈망한다. 그러던 어느 날, 둘은 한밤중에 묘지에 갔다가 살인사건을 목격하게 되는데….

마크 트웨인의 1876년 작품으로 미국문학의 걸작으로 평가된다. 19세기 미국 미주리 주 미시시피 강변의 한 마을이 배경으로, 톰 소여, 혁 핀, 베키 등의 등장인물과 그 배경이 실제 인물과 지역을 모델로 했다. 그의 대표작인 <허클베리 핀의 모험 The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과 함께 소설로, 소년의 시각으로 어른 사회의 위선과 허세를 조롱하고 있다.

## 전문 번역

### 톰 소여의 모험

#### [ 제1장 ] 담장 칠하기

p. 12-13 톰에 비어 있는 단지 한 개가 있었다. 그 단지에는 원래 딸기잼이 들어 있었다. 폴리 이모는 화가 났다. “톰, 어디 있니, 애야?” 폴리 이모는 톰의 침실로 갔다. 그녀는 그의 침대 밑에 빗자루를 짤라 넣었다. 가족이 키우는 고양이가 뛰쳐나왔다. 폴리 이모는 뒤에서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갑자기 몸을 돌려 와락 붙잡았다. 그녀는 톰의 셔츠 뒤를 손으로 잡았다. 딸기잼이 톰의 얼굴에 묻어 있었다. “폴리 이모, 조심하세요!” 톰이 외쳤다. “뒤에 – 쥐요!” 폴리 이모는 펄쩍 뛰며 돌아섰다. 그녀는 빗자루를 들어올렸다. 톰은 집 밖으로 도망갔다. 폴리 이모는 웃었다. 쥐는 없었다.

p. 14-15 톰은 악동이었다. 하지만 똑똑했다. 그의 어머니는 오래 전에 돌아가셨다. 폴리 이모는 그녀의 언니였다. 톰의 아버지는 그의 곁에 있지 않았다. 그래서 톰은 폴리 이모와 함께 살았다. 폴리 이모는 톰이 걱정되었다. 그녀는 그를 때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가르쳐야 했다. 그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다. 수업이 없었다. 폴리 이모는 톰에게 담장을 칠하라고 했다. “하지만 토요일이잖아요.” 톰이 외쳤다. “너는 착해지는 법을 배워야 해.” 폴리 이모가 말했다.

p. 16-17 톰은 밖으로 나갔다. 그에게는 흰색 페인트 한 통이 있었다. 그는 붓을 하나 가지고 있었다. 담장은 매우 길었다. 그것은 그의 키보다 커다. 그는 판자 두 개를 칠했다. 그는 남아 있는 판자를 보았다. 그것은 바다만큼 드넓어 보였다. 톰은 걱정되었다. 다른 소년들이 길을 따라 걸어올 것이다. 그들은 그가 토요일에 일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들은 그를 비웃을 것이다. 톰은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벤이 오는 것을 보았다. 톰은 담장을 조심스럽게 칠하기 시작했다.

p. 18-19 “안녕, 톰. 너 뭐하니?” 톰은 벤의 말을 듣지 못한 척했다. “야, 톰.” 벤이 소리쳤다. 톰이 벤을 쳐다보았다. “아, 안녕, 벤.” 그가 말했다. “네 소리를 못 들었어.” “너 왜 일해? 토요일이잖아요.” “일? 너는 이게 일이라고 생각하니?” 톰이 물었다. “일 같이 보이는데.” 벤이 말했다. “너 수영 가고 싶지 않아?” “아니. 난 차라리 이거 할래.” 톰이 말했다. 벤은 혼란스러워졌다. “야. 내가 판자 두개 칠할 수 있게 해줘.” “아, 안 돼.” 톰이 말했다. “폴리 이모가 좋아하지 않으실 거야. 오직 특별한 소년들만이 잘 칠할 수 있거든.” “나 할 수 있어.” 벤이 말했다. “내가 하게 해줘. 너에게 내 사과를 줄게.”

p. 20-21 톰은 벤이 칠을 하게 해주었다. 그는 나무 밑에 앉아서 사과를 먹었다. 다른 소년들 몇 명이 왔다. 톰은 그들에게 오직 특별한 소년들만 페인트 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사람씩, 소년들은 톰에게 대가를 지불했다. 그들은 칠하고 싶었다. 그들은 톰에게 자신들이 귀중한 것을 주었다. 이른 오후에 담장은 완성되었다. 톰의 주머니에는 구슬과 장난감이 그득했다. 그는 폴리 이모에게 담장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감동했다. “믿을 수가 없구나.” 그녀가 말했다. “좋아, 이제 수영 가도 돼.”

## 【제2장】묘지 살인

**p. 24-25** 월요일 아침에 톰은 학교에 갔다. 가는 길에 그는 혁 편을 보았다. 톰처럼 혁은 어머니가 없었다. 혁의 아버지는 일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혁의 아버지는 마을을 떠났다. 혁은 혼자였다. 혁은 학교에 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만 했다. 마을에 있는 아이들 모두가 혁을 부러워 했다. 하지만 아이들의 어머니들은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 톰은 혁과 이야기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소년들은 가장 친한 친구 사이였다. “안녕, 혁.” 톰이 말했다. “그게 뭐야?” “죽은 고양이야.” 혁이 말했다. “난 사마귀를 치료하는 데 이걸 쓸 거야.” 사마귀는 피부에 생기는 보기 싫은 혹이다.

**p. 26-27** 혁은 톰에게 사마귀 치료하는 법을 말해 주었다. 우선 죽은 고양이를 구한다. 그리고 나서 나쁜 사람이 죽기를 기다린다. 자정에 그 사람의 무덤에 간다. 악마가 그 나쁜 사람을 데리러 올 것이다. 악마에게 그 죽은 고양이를 던진다. 그리고 나서 주문을 외운다. 사마귀가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늙은 호스 윌리엄스가 어제 죽었어.” 톰이 말했다. “그는 오늘 묻힐 거야.” “좋았어, 난 오늘 밤 그의 무덤에 갈 거야.” 혁이 말했다. 톰과 혁은 같이 가기로 했다.

**p. 28-29** 톰은 시드와 함께 방을 썼다. 시드는 폴리 이모의 아들이었다. 그날 밤 톰은 시드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 그는 창문 밖으로 기어 나왔다. 톰은 혁을 만났다. 그들은 묘지로 갔다. 그들은 호스 윌리엄스의 무덤을 찾았다. 곧 그들은 무덤을 찾았다. 혁은 멈춰서 자신의 손을 들었다. “들어봐!”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톰과 혁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유령이다!” 톰이 말했다. “아니면 악마든지.” 혁이 말했다. 소년들은 근처에 숨었다. 하지만 그것은 유령도 악마도 아니었다. 그것은 세 명의 남자였다.

**p. 30-31** 먼저 비열한 범죄자인 인디언 조가 왔다. 그리고 나서 마을의 술주정뱅이인 머프 포터가 왔다. 그들 뒤에는 로빈슨 박사가 있었다. 그들은 시체를 파내기 위해 왔다. 로빈슨 박사는 자신의 연구를 위해 시체를 갖고 싶었다. 남자들은 호스 윌리엄스의 무덤에서 멈춰섰다. 인디언 조와 미프 포터는 땅을 파기 시작했다. 로빈슨 박사는 나무 밑에 앉았다. 톰과 혁은 그 나무 뒤에 숨어 있었다. 그들은 너무 무서워서 움직일 수도 없었다. 곧 두 남자는 관을 파냈다. 인디언 조가 말했다. “자, 의사 선생. 우리에게 5달러를 더 주시오. 안 그러면 이 시체는 여기에 그대로 있을 거요.”

**p. 32-33** 로빈슨 박사는 화가 났다. “내가 당신에게 선불로 줬잖소. 우리는 그 가격으로 합의를 했소.” “기억 안 나요?” 인디언 조가 물었다. “5년 전에 난 당신 집으로 갔소. 난 배가 고팠지. 난 먹을 것을 부탁했소. 당신은 경찰에게 내가 도둑이라고 말했지. 난 감옥에 갇혔어. 내가 복수하겠다고 말했지.” 로빈슨 박사는 갑자기 인디언 조를 주먹으로 때렸다. 인디언 조는 뒤로 넘어졌다. “이봐, 그 사람은 내 동업자야.” 머프 포터가 말했다. 머프는 칼을 꺼냈다.

**p. 34-35** 로빈슨 박사는 삽을 들었다. 그는 머프의 머리를 쳤다. 머프는 쓰러졌다. 그는 쏨짝 않고 누워 있었다. 인디언 조는 일어나서 칼을 들었다. 그는 로빈슨 박사의 가슴을 찔렀다. 피가 그의 가슴에서 나왔다. 로빈슨 박사는 머프 위로 쓰러졌다. 톰과 혁은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그들은 달리고 또 달렸다. 마침내 그들은 마을로 돌아왔다. 그들은 매우 무서웠다. “우린 아무한테도 얘기해서는 안

돼.” 톰이 말했다. “만약 말하면 인디언 조가 우리를 죽일 거야.” 혁이 말했다. 소년들은 절대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 [ 제3장 ] 가출 계획

**p. 38-39** 다음날은 톰에게 운 나쁜 날이었다. 그는 늦게 일어났다. 시드는 벌써 가버렸다. 톰은 아래층으로 갔다. 폴리 이모는 탁자에 앉아 있었다. “시드가 어젯밤에 네가 나가는 것을 봤다고 하던데.” 그녀가 말했다. 톰은 폴리 이모가 자신을 때릴까 두려웠다. 하지만 때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더 안 좋은 뭔가를 했다. 울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녀는 톰이 매우 나쁜 아이라고 말했다. 톰은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녀는 애쓰고 또 애썼지만 소용이 없었다. 톰은 항상 나쁜 짓을 했다.

**p. 40-41** 톰은 기분이 너무 안 좋았다. 이것은 벌 받는 것보다 더 안 좋았다. “죄송해요, 폴리 이모.” 톰이 외쳤다. “바꿔주세요. 착해질게요.” 폴리 이모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서둘러 학교에 가라고 했다. 톰은 여전히 기분이 좋지 않았다. 톰은 학교에 지각했다. 선생님은 반 친구들 앞에서 그를 때렸다. 톰은 이제 정말 슬퍼하고 있었다. 그는 점심시간에 또 다른 충격을 받았다. 톰이 좋아하던 소녀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베키였다. 베키는 그가 예전에 다른 소녀를 좋아했었다는 것을 알아 버렸다.

**p. 42-43** 톰은 더 이상 그 다른 소녀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베키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와 말을 하지 않으려 했다. 방과 후에 톰은 걸어서 집으로 갔다. 그는 기분이 끔찍했다. “만약 내가 죽으면 모두가 나를 그리워 할 거야. 그들은 나에게 놗되게 군 걸 후회하게 될 거야.” 톰은 진한 친구가 오는 것을 보았다. 그의 이름은 조 하퍼였다. 조 또한 슬퍼 보였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때렸다. 그녀는 그가 학교에 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대신 수영하러 갔었다. 조는 톰에게 자신이 도망갈 거라고 했다. 그는 동굴에서 살다가 혼자 죽겠다고 했다.

**p. 44-45** “나한테 더 좋은 생각이 있어.” 톰이 말했다. “해적이 되자. 그러면 모두들 후회하게 될 거야.” 조는 그 생각이 마음에 들었다. 톰은 혁이 그들과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혁은 더 나은 할 일이 없었다. 그는 기꺼이 승낙했다. 그날 오후, 소년들은 준비했다. 그들은 훔칠 수 있는 모든 음식을 훔쳤다. 그들의 마을은 거대한 미시시피강 바로 옆에 있었다. 강 바로 아래에 섬 하나가 있었다. 아무도 그 섬에 살지 않았다. 그곳은 소년들이 숨을 만한 완벽한 장소였다. 그들은 그곳을 해적 본거지로 만들 것이었다.

### [ 제4장 ] 의사와 장례식

**p. 50-51** 밤에 그들은 강가에서 만났다. 그들은 작은 뗏목을 훔쳤다. 끝 그들은 섬에 도착했다. 아무도 그곳에 살지 않았다. 그들은 자유롭고 야성적인 느낌이 들었다. 그들은 불을 지폈다. 그들은 베이컨과 햄을 익혔다. 그들은 잠이 들었다. 그들은 해적이 되는 꿈을 꾸었다. 그 다음 날 소년들은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그들은 물고기를 잡았다. 그들은 거북 알들을 발견했다. 그들은 뛰고, 물에서 수

영하고 물장구를 쳤다. 그 날 오후, 그들은 강배 한 척을 보았다. 선원들이 물 속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들은 긴 장대를 바닥에 대보았다. 그들은 시체들을 찾고 있었다!

**p. 52-53** 톰이 말했다. “야, 저 사람들이 우리를 찾고 있어! 마을사람들이 우리가 물에 빠져 죽었다고 생각하나 봐.” 그날 밤, 톰은 몰래 마을로 돌아갔다. 그는 집으로 갔다. 그는 조용히 뒷문으로 들어갔다. 그는 이모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조의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올고 있었다. 그들은 톰과 조를 그리워했다. 폴리 이모가 말했다. “난 톰을 떠린 것이 전부 미안해요.” “내 아이도 말을 듣지 않아요.” 조의 엄마가 말했다. “하지만 난 아들만 돌아오게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줄 거예요.” 톰은 미안했다. 그는 그들에게 자기와 조가 살아 있다고 말하고 싶었다.

**p. 54-55** 그때 톰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섬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토요일에 우리의 장례식을 거행할 계획이야.” 혁과 조는 놀랐다. 그러고 나서 톰은 다른 소년들에게 그의 계획을 말했다. 그들은 그것이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다. 금요일 밤에 소년들은 섬을 떠났다. 그들은 새벽 일찍 마을에 도착했다. 아직도 어두웠다. 그들은 교회로 걸어갔다. 그들은 벤치 뒤에 숨었다. 그들은 잠이 들었다. 그날 아침 교회에 사람이 가득 찼다. 대부분의 마을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

**p. 56-57** 목사가 장례식을 거행했다. 텅 빈 판이 세 개 있었다. 하나는 톰, 하나는 조, 그리고 하나는 혁을 위한 것이었다. 모두가 울고 있었다. 갑자기 목사가 말을 멈췄다. 그는 교회 뒤를 보았다. 그의 얼굴에 놀란 표정이 역력했다. 통로를 따라 톰, 조, 그리고 혁이 왔다. 모두가 잠시 혼란스러웠다. 그러고 나서 모든 사람이 환호하고 있었다. 폴리 이모는 톰을 잡아당겨 안았다. 조의 어머니는 울며 조에게 입맞추고 있었다. 모두가 행복했다. 그들은 소년들의 능을 쓰다듬었다. 소년들은 영웅이 된 것 같아 느껴졌다.

#### 【제5장】재판 그리고 보물

**p. 60-61** 며칠 후 법정 재판이 시작되었다. 머프 포터는 살인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모든 사람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톰은 기분이 매우 안 좋았다. 그는 머프 아저씨가 유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톰은 혁을 찾았다. “너 머프 아저씨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지, 그렇지?” 혁은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리가 이야기하면 분명히 인디언 조가 우리를 죽일 거야.” 두 소년 모두 무서웠다. 하지만 그들은 머프 아저씨를 좋아했다. 살인사건이 있기 전에 머프 아저씨는 좋은 사람이었다. 머프 아저씨는 마을에서 소년들의 연을 고쳐 주었다. 그는 소년들이 낚싯줄에 낚시 바늘 묶는 것을 도와주었다. 혁과 톰은 머프 아저씨가 죽는 것을 원치 않았다. 머프 아저씨가 유죄라고 판결나면 교수형에 처해질 것이다.

**p. 62-63** 마침내 톰은 머프 아저씨의 변호사에게 이야기했다. 그 다음날, 톰은 증인으로 소환되었다. 인디언 조가 법정에 앉아 있었다. 톰은 그를 보지 않으려고 했다. “전 로빈슨 박사가 머프 아저씨를 때리는 것을 봤어요.” 톰이 말했다. “그는 쓰러졌고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인디언 조가 머프 아저씨의 칼을 집어 들어서….” 무슨 소리가 났다. 인디언 조가 창밖으로 뛰어내렸다. 그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머프 아저씨는 무죄로 평결되었다. 톰은 다시 영웅이 되었다.

**p. 64-65** 몇 주가 지나자 톰은 초초해졌다. 그는 새로운 모험을 원했다. 대부분의 소년들은 숨겨진 보물을 꿈꾼다. 톰은 숨겨진 보물을 찾아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혁를 만나서 자신의 계획을 그에게 말했다. “어디에서 찾아야 되지?” 혁이 물었다. “마을 밖에 오래된 집 한 채가 있어.” 톰이 말했다. “토요일 오후에 거기에 가자.” 톰과 혁은 그 오래된 집 밖에서 만났다. 각자 삽을 가지고 있었다. 소년들은 천천히 현관을 열었다. 안의 바닥 흙이었다. 계단은 2층으로 연결되었다. 소년들은 위층을 둘러보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1층에 삽을 두었다.

**p. 66-67** “쉿! 저거 들리니?” 톰이 말했다. 소년들은 목소리를 들었다. “유령이야.” 혁이 말했다. “아니야, 남자들이야.” 톰이 말했다. “그리고 그들이 현관으로 들어오고 있어.” 두 소년은 2층에 엎드렸다. 두 명의 남자가 집에 들어왔다. 소년들은 첫 번째 남자를 몰랐다. 두 번째 남자는 인디언 조였다. 두 남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북쪽에 있는 집 한 채를 털었다. 그들은 약 6백 달러가 있었다. 첫 번째 남자는 택시스에 가고 싶어 했다. 인디언 조는 남고 싶어 했다.

**p. 68-69** “6백 달러를 땅에 묻자.” 첫 번째 남자가 말했다. 인디언 조는 큰 칼을 꺼냈다. 그는 한쪽 구석을 파기 시작했다. 톰과 혁은 주의 깊게 보았다. 그들은 그들의 행운이 믿기지 않았다. 여기 두 소년에게 충분한 보물이 있었던 것이다. 둔탁한 소리가 났다. 인디언 조의 칼이 뭔가를 쳤다. “이게 뭐지?” 그가 말했다. 그는 오래된 철제상자를 끌어올렸다. 남자들은 그것을 열었다. 그 안에는 금화가 가득 들어 있었다. “강도 한 무리가 우리보다 앞서 여기에 왔었군.”

**p. 70-71** 이제 톰과 혁은 매우 신이 났다. “우리가 그걸 여기에 묻어야 할까?” 첫 번째 남자가 물었다. “아니.” 인디언 조가 말했다. 그는 소년들의 삽을 보았다. “여기에 삽이 있어. 누가 여기에 저걸 가져왔지? 아마 그들이 다시 돌아올 거야.” 두 남자는 상자를 들어올렸다. 그들은 집을 떠났다. 톰과 혁은 기다렸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마을로 뛰어서 돌아왔다. 두 소년은 슬펐다. 그들은 두 가지 보물을 잃어버린 것이었다. “강도 한 무리가 우리보다 앞서 여기에 왔었군.”

### 【제6장】 마지막 모험

**p. 74-75** 그 해 여름, 학생들은 소풍을 갔다. 그들은 마을 근처 동굴로 갔다. 베기가 거기에 있었다. 그녀는 톰의 모험에 감명 받았다. 그들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모든 학생들은 동굴 견학을 했다. 톰과 베기는 그 무리에서 뒤쳐졌다. 그들은 한곳에서 너무 오래 놀았다. 그들은 길을 잃었다. 베기는 무서웠다. 그들의 초가 꺼졌다. 베기는 울었다. 아이들은 하루 종일 혼냈다. 그들은 잠이 들었고 그 다음날 잠에서 깼다. “여기에 있어.” 톰이 말했다. “내가 나가는 길을 찾아볼게.” 톰은 동굴을 따라 기어갔다.

**p. 76-77** 갑자기 톰은 빛을 보았다. 촛불 하나가 구석에서 어른거렸다. 그는 소리치려 했다. 그 때, 그는 인디언 조를 보았다! 톰은 재빨리 뒤로 물러났다. 인디언 조는 그를 보지 못했다. 톰은 다른 길로 갔다. 그는 작은 출구를 발견했다. 그는 돌아가서 베기를 데리고 왔다. 이때쯤 되니 마을 사람들

은 걱정을 하고 있었다. 폴리 이모는 톰이 조의 집에 있는 줄 알았다. 베키의 엄마는 베키가 친구네 집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 다음날 자신들이 잘못 알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p. 78-79** 수색대가 동굴로 갔다. 그들은 밖에 있는 톰과 베키를 발견했다. 아이들은 춥고 배가 고팠다. 그들은 휴식이 필요했다. 베키의 아버지는 판사였다. 그는 동굴에 문을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그 문은 강철로 만들어졌다. 그것에는 무거운 자물쇠가 있었다. 이를 후에 톰은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인디언 조에 대해 얘기했다. 그들은 동굴로 가서 문을 열었다. 인디언 조는 동굴 안쪽 문 옆에 있었다. 그는 굶어 죽었다.

**p. 80-81** 며칠 후에 톰은 혁을 만났다. “보물은 동굴에 있어야만 해.” 소년들은 톰이 발견한 출구에 갔다. 톰은 그것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었다. 소년들은 연 끈을 밖에 있는 덤불에 묶었다. 그들은 다른 쪽 끝을 그들 몸에 묶었다. 그들은 동굴을 탐험했다. 그들은 인디언 조의 은신처를 발견했다. 침대, 총 그리고 금이 든 상자가 있었다. 소년들은 부자였다. 혁은 다시는 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다. 베키의 아버지는 톰을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그는 커서 유명한 사람이 될 거야.” 그가 말했다.